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문법의 공시적 변이와 그 발전기제

박정구 (서울대)

1. 들어가며

최근 언어유형론의 연구는 언어 연구의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인간 언어의 다양성을 포섭하며 개별 언어의 연구 성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은 언어의 공시적 유형뿐만 아니라 언어의 통시적 유형 변화에 대해서도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력을 제공해준다.

중국어는 중국전역의 광활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방언 간의 문법적 차이도 적지 않다. 또한 한 방언 내에서도 동일 문법 범주 내에 다양한 성분들이 유사한 기능을 보이거나 동일 성분이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거나 탈범주화하는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법적 변이의 존재가 주목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어 문법 연구가 중국어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왔기에 중국어를 인간언어 중의 한 유형으로 보고 보편성을 탐색하려는 유형론적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공시와 통시의 연구를 지나치게 이원화하여, 공시적 변이를 통시적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려는 노력이 적었다. 셋째, 중국어의 문장 성분들의 기능 분석을 통사론 내에 한정하여 비통사적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지 않았다. 넷째, 문법 연구가 지나치게 핵심과 비핵심을 구분하고 변이들을 예외적이고 비핵심적인 현상으로 취급하여 언어발전 원리를 설명하는 열쇠를 갖고 있는 그들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본고는 중국어에 존재하는 문법적 변이들에 대해서 유형론적 보편성 탐색을 시도하고 그 기제를 밝히려고 한다. 그 주된 대상은 중국어의 어순 유형론 및 구문 유형론, 품사 유형론, 기능범주 유형론 등에서 보이는 다양한 변이 현상들이다. 이들을 장별로 범언어적 보편성, 공시와 통시의 융합, 연구 영역 간의 소통이라는 각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범언어적 보편성

적지 않은 학자들에게 중국어는 특수한 언어로 인식되어 왔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어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중국어가 문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어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언어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중국어가 다른 언어와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갖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어의 특수성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의 언어 속에 매립되어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에서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

중국어에 문법이 없다고 말하는 견해는 아마도 중국어가 격, 시제 등의 굴절을 하지 않고 품사의 구분이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 언어에서 격 굴절을 하지 않는

언어가 적지 않다. 언어가 ‘굴절어→고립어→교착어→굴절어’와 같은 순환적 발전을 계속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중국어가 특수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 중국어에 품사가 없다는 말은 인구어를 보는 시각으로 중국어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품사는 언어적 보편성을 갖는 범주이다. 다만 언어에 따라서 품사의 수와 종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품사에 대한 함축적 위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만일 어떤 언어가 2개의 구별되는 품사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명사와 동사일 것이며, 3개가 존재한다면 명사, 동사, 형용사이고 4개가 존재한다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일 것이다. 또한 형용사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 성과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Wetzer(1992)는 형용사가 언어에 따라서 명사수식 기능이 주요 기능인 경우와 직접 술어로 쓰이는 것이 주요 기능인 언어로 구분되며, 중국어는 후자에 속한다. 박정구(2010)은 중국어에서 구별사가 존재하는 것은 품사체계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임을 밝혔다.

중국어는 소위 ‘양사’가 풍부한 언어이다. 이는 인구어에서 드문 현상으로서 중국어의 특수성을 주장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양사’는 언어유형론적으로 ‘분류사(classifier)’라는 용어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는 원래 ‘분류사 언어’가 아니었다. 백은희 외(2012)에 따르면, 갑골문에서는 분류사가 거의 보이지 않고, 소수 ‘羌一人’, ‘人一人’ 등의 원시적인 ‘복사형’ 분류사가 쓰이다가 선진 이후 점차 확대 발전하여, 현대중국어에서는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경우 모든 명사가 분류사와 공기하게 되었다. 분류사를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일본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언어에서 많이 발견되며, 아프리카어, 아메리카 원주민어에서도 발견된다. 수사가 명사와 공기할 때 단위로서 분류사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 내부의 문법화 과정의 결과일 수도 있고, 언어접촉을 통해서 그 체계가 유입되기도 한다. 한국어의 많은 분류사가 중국어에서 온 한자어임을 생각한다면, 언어접촉의 강력한 힘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어에서는 수사, 분류사, 명사 간의 어순이 중국어 어순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시기별로 다른 어순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어순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한국어에서는 여러 어순 변이를 어투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분류사가 언어에 따라서 다양한 어순 변이를 보여주지만 인간 언어의 몇 가지 가능한 유형에 귀속된다.

과거 중국어 표준어에 대한 연구는 표준어 내에서의 체계를 어떻게 수립하고 각각의 변이를 어떻게 규명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과정에서 표준어에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비대칭적인 문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분류와 묘사는 가능하지만, 원리적인 해석을 진행하기 힘들다. 다음 예를 보자.

- (1) a. 他们在唱歌呢。 b. 他们在客厅唱了一首歌。
 c. 他们在客厅唱歌呢。 d. 他坐在台上。 e. 他们坐着呢。

중국어에서 ‘在’가 동사의 앞에 쓰일 경우,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다. (1a)에서는 진행상 표지로, (1b)에서는 전치사로, (1c)에서는 진행상과 전치사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在’가 동사의 뒤에 쓰일 경우는 동작 후의 존재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면서 뒤에 처소구를 갖게 되며, 만일 뒤에 처소구가 오지 않으면 ‘在’를 쓸 수 없고 ‘着’를 써야 한다. ‘在’가 공시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그 기능적 체계가 가지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박정구(2016)은 중국의 다양한 방언과의 비교를 통해서

표준어의 ‘在’의 기능이 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苏州 방언의 예이다. (石汝杰 1966:357-362)

- (2) a. 啊姐勒海灶下烧饭。 b. 我勒海奔勒，勿觉着冷。 b. 坐勒海，[勿要]勒海。

(2)에서 ‘在’에 해당하는 어휘 ‘勒海’도 동사의 앞에서 처소와 진행을 모두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방언에서 ‘在’에 상응하는 어휘가 동사의 뒤에 부가될 때 처소구를 부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温州’ 방언에서는 ‘着’의 의미를 가진 ‘着搭’가 (2)의 ‘勒海’의 기능을 가진다. ‘着’, ‘在’처럼 ‘존재’와 관련된 의미를 가진 어휘들은 부치사뿐만 아니라, 상표지로서 진행이나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기타 언어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문법화의 과정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중국어의 개사가 다양한 기능을 보이는 현상이다. 다음 예를 보자.

- (3) a. 由东到西。 b. 由南门入场。 c. 由你决定吧!
d. 这是由交通事故引起的。 e. 社会由个体组成。 f. 由此可知。

중국어의 ‘由’는 (3a-b)기점과 경유를 주로 나타내지만, (3c-f)에서는 행위자, 원인, 재료, 근거 등을 나타낸다. 하나의 개사가 다양한 의미역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기능적 확장은 어떤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박정구 외(2017)는 중국어 각 방언 및 타 언어 중의 기점 개사들의 다기능성을 분석하여, 기점을 나타내는 개사의 기능 확장에 두 가지 인지적 추론, 즉 은유와 환유가 작용했음을 밝혔다. 또한 두 가지 사건유형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는 구체적 이동을 나타내는 ‘이동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로부터 출발한 행위가 대상에 미치는 ‘행위사건’이다. 환유는 두 사건 내에서 각각 [기점-경유-중점] 및 [행위자-도구-대상]의 기능 확장을, 은유는 [기점-근거-원인-행위자], [경유-도구], [중점-대상]의 기능 확장 노선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환유, 은유 기능 확장 노선을 바탕으로 중국어 방언 및 한국어를 비롯한 기타 언어에 통용되는 보편적 개념공간을 수립하였다.

3. 공시와 통시의 소통

공시와 통시는 구분이 모호하지만, 언어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소쉬르가 ‘공시언어학’이란 개념을 제기한 이후, 언어학은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공시는 정적이고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나, 통시는 역동적이고 비체계적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공시적 문법 체계 내에서 발견되는 변이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하나의 평면적 체계 내에서 그들을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다. 문법체계와 요소들의 변화는 점진적이며, 어느 한 순간에 완성될 수 없다. 또한 많은 범주와 요소들이 동일시기에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기나 속도, 양상이 다르다. 결국 공시적 체계 내에서 보이는 많은 현상들이 정적이지 않고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 발전은 인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모든 공시적 변이 현상은 모두 시간의 흐름을 따른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품사 구분의 문제에 있어서 고대한어에서는 음운적 변화, 특히 성조변화를 통해서 그 문법적 기능을 구별할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음절이 단일 기능이 아닌 다중 기능의 형태소가 융합되어 종합어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는 특히 고대한어의 부정사에서 그 예를 잘 볼 수 있다. 고대한어에서 현대한어로의 언어변화를 종합어에서 분석어로의 변화로 보는 견해는 부정사가 ‘부정소와 기타 형태소’가 결합된 형식에서 부정사와 다른 기능의 형태소가 분할했음을 설명해준다.

- (1) a. 没→没有 b. 未→未曾→不曾 c. 非→非是→不是

그러한 과정은 현대 표준중국어에서 부정사가 ‘不’와 ‘没’만 존재하는 결과를 갖게 했다. 그러나 부정사 ‘没’도 ‘没有’로 확장될 수 있어서 ‘부정+존재’의 두 문법적 의미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정사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예는 중국어 방언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부정사를 구분해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부정사의 사용 유형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 (2) A유형: 不=无=没 B유형: 不≠无≠没 C유형: 不≠无=没 D 유형: 不=无≠没 E유형: 不=没≠无

백은희 외(2013)는 중국 방언에서도 D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인지적 기제 및 경제성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리의 경쟁 관계에서 설명하였다. 존재와 완결/완료의 개념은 은유적 확장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不’는 가장 중립적인 부정사로 쓰이면서 존재와 완결/완료의 부정사와 형태적으로 구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국어에서 복합방향보어가 내부 논항을 주요 동사의 뒤에 부가하는 경우의 예를 보자.

- (3) a. 拿一本书出来 b. 拿出一本书来 c. 拿出来一本书

현대 중국어 복합방향보어 구문에서 목적어는 주요동사의 뒤 쪽에서 세 가지 위치에 출현할 수 있다. 그 중 (3a)와 (3b)의 어순은 모어화자가 의미적인 차이를 쉽게 찾기가 힘들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공시적으로 이 두 어순이 존재하는 것은 언어의 통시적 발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3a) 구문은 쇠퇴하고 있고, (3b) 구문은 그 구문을 대체하고 있다. (3a)의 어순은 ‘V+O+V’의 어순으로서 일종의 소위 ‘겹어식’ 구조이다. 현대한어의 방향동사가 보어(C)로 쓰일 경우는 ‘V+C+O’의 어순을 갖지만, 근대한어에서는 일찍이 ‘V+O+C’의 어순을 갖고 있었다. 동사와 방향보어가 점차 하나로 결합되어 쓰이는 것은 통시적 발전의 영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순 변화는 긴 시간에 걸쳐서 완성되며, 현대중국어에서 잔재적 용법이 남아 있는 것이다. 즉, 현대 중국어에서 가장 전형적인 어순은 ‘V+C+O+{来/去}’이며, ‘V+O+C+{来/去}’의 어순은 점점 퇴화하고 있다. (3c)의 구문은 (3a-b)와 구분되는 구문으로서 실현된 사건을 서술하는데, 이는 ‘来’의 상표지로의 문법화와 관련된다.

현대중국어의 이중목적어구문과 관련된 다양한 변이를 살펴보자

- (4) a. 我卖了他一本书。 b. 我卖给了他一本书。
 c. 我卖了。 d. *我卖给了。
 e. 我卖了一本书。 f. *我卖给了一本书。
 g. *我卖他了。 h. 我卖给他了。
 i. *我把书卖他了。 j. 我把书卖给他了。

(4)에서 보는 보와 같이 ‘卖’는 (4a)처럼 목적어를 직접 두 개 취할 수도 있고, (4b)에서처럼 ‘给’를 부가하여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4c-j)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목적어가 모두 생략되거나 그 중의 하나의 목적어만 쓰이는 경우는 문법성이 대칭적으로 구별된다. 박정구 외(2014)는 ‘卖’류의 3항동사가 이러한 문법적 변이를 가지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해당 구문의 통시적 발전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V{与/给}+Or+Ot’는 ‘V+Or+Ot’와는 각자 독립된 경로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는 접수자(Recipient)를 문말에 두려는 정보구조 기제의 일환으로 발전된 구문으로서, ‘V{与/给}+Or’ 구문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V가 하나의 논항을 후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위자성(Patiency)이 높은 T 논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R 논항을 동사 뒤에 후치하는 새로운 표지로서 ‘与/给’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통시적 발전과정에서 ‘与’에서 ‘给’로의 어휘적 대체현상이 존재했었다. ‘V{与/给}+Ot’ 구문과 ‘V{与/给}+Or+Ot’ 구문의 통시적 발전 시기를 비교해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발전하여 후자의 발전을 견인했다. ‘卖’가 ‘卖一本书’ 형식에 쓰이다가 ‘卖他一本书’ 형식으로 구문적 확장이 발생했듯이 ‘卖给’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그 용법을 확장시킨 것이다. 구문문법 이론에 근거하면 이러한 용법 확장은 ‘吃’라는 동사가 ‘吃了一个苹果’에서 ‘吃了他一个苹果’처럼 동사의 논항구조와 구문의 논항구조를 결합시킨 결과이다. 현대중국어 이중타동구문에서의 다양한 문법적 변이는 언어발전의 유형론적인 보편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4. 영역 간의 소통

언어학의 연구 영역은 적지 않은 영역의 분화를 이루었다.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음성학 등이 그것이다. 과거의 중국언어학 연구에서 통사적 연구는 의미나 화용과는 분리되었고, 생성문법은 통사의 자율적 체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어느 한 영역이 완전히 자립적으로 존재하여 외부와 소통 없이 철저한 자율적 체계를 이루기는 힘들다. 이는 언어유형론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다. Li & Thomson(1976)은 일찍이 세계 언어의 유형을 주어부각언어와 주제부각언어로 구분한 바 있다. 영어가 전자에 속한다면, 중국어는 후자에 속한다. Chao(1968)은 일찍이 중국어의 주어를 ‘진술대상’으로 정의하여야 하고, 주어를 ‘doing’이나 ‘being’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국어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통사적 추상원리와 인지적 도상원리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현대중국어는 추상원리보다 도상원리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어 구문과 어순에 대한 연구가 통사적인 면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중국어 문법의 비통사적인 힘을 지나치게 축소했다. 언어유형적인 시각은 언어학 분석에서 범주

간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주시하기를 요구한다. 중국어 문법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중국어에서 형용사가 술어로 쓰일 경우, 일반적으로 정도부사를 부가한다. 만일 맨형용사가 술어로 쓰인다면, 전체 문장은 비교나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朴正九(2016)는 그 현상의 기제를 밝히고자 정보포장 방식과 문장형식 간의 상호 작용을 탐색하였다. 우선 다음 예문을 보자.

- (1) A: 天气怎么样? B: (天气)很好。 / *(天气)好。

(1)에서 A의 질문에 대한 대답문에서 형용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보구조이론의 관점에서 그 설명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정보구조는 통사론과 화용론의 접합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정보를 어떻게 포장하는지가 어떻게 문장형식에 반영되는지를 설명해준다. 무표적인 문장구조는 화제를 가지는 문장이다. 즉, 문두의 주어는 무표적으로 화제이며, 주어가 화제가 아닐 경우는 유표적이며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화제-진술문은 술어가 초점이 되는 ‘술어초점문’이며, 유표적인 비화제-진술문은 주어가 초점인 ‘논항초점문’ 이거나 문장전체가 초점인 ‘문장초점문’ 이 된다. 아래의 (2B)는 논항초점문이며, (3B)는 문장초점문이다.

- (2) A: 哪个好? B: 这个好。
 (3) A: 你为什么不去? B: (因为)工作忙。

‘很’이 부가되면서도 정도 강화의 기능이 약화된 것은, ‘화제-진술문’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도부사의 정도강화 의미가 탈색된 결과이다. 이는 비단 표준어뿐만 아니라, 각 방언에서도 의미적으로 약화된 정도부사가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언어학 영역 간의 소통은 중국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범언어적인 보편성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정보를 포장하는 방식은 인간언어의 보편적 인지활동이다. 술어, 주어, 문장전체 등을 초점으로 삼거나 주어를 화제로 삼거나 화제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정보적 내용을 문장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순, 표지, 운율 등이다. 언어 간에 정보를 포장하는 공통된 방식은 공유되지만 그 문장형식은 다를 수가 있다. 우선 앞서 예를 든 형용사 술어문의 예를 보자.

- (4) a. 今天的天气很好。 오늘의 날씨는 좋다.
 b. 因为工作忙。 일이 바빠서.

예문 (4a)에서 ‘很’은 한국어 번역문에서 정도를 강조하는 의미로 번역되지 않지만, 화제를 나타내는 표지인 조사 ‘는’이 쓰였다. 반면에 예문 (4b)의 한국어 대담문을 보면 화제 표지 ‘는’이 아닌 주격 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에서 정도를 더 이상 강화하지 않는 ‘很’은 술어초점표지로 볼 수 있으며, 그 앞에 오는 주어가 이미 화제임을 나타낸다. ‘很’을 부가하지 않고 맨형용사가 술어로 쓰인 문장은 주어가 화제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조사 ‘이/가’를 쓰게 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개의 언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포장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언어에 따라 적용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어순을 통해서 정보가 다르게 포장됨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존현문이다.

- (5) a. 来客人了。 손님이 왔어요.
 b. 客人' 来了。 손님은 왔어요..
 c. ' 客人来了。 손님이 왔어요.

(5a)는 중국어 문법에서 소위 ‘존현문’ 이라고 부르는 문장으로서, 제시문의 일종이다. 제시문은 사물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문장으로서 사건 전체가 하나의 초점이 된다. 반면에 (5b)는 화제가 있는 술어초점문이다. (5a)와 (5b)가 구별되는 가장 큰 형식적 특징은 어순이다. 그러나 운율적인 요소도 개입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만일 강세를 주어에 두게 된다면, (5c)와 같이 사건보도문이 되어 전체 문장이 초점이 된다. 어순이나 표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율이 유일한 표지가 될 수도 있다. 다음 예를 하나 더 보자.

- (6) 一个小时就写了一百个字。

(6)에서 어디에 강세가 오는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만일 주어에 강세가 오면 ‘한 시간만에 백 자나 썼다’ 라는 의미로 시간이 적게 걸렸음을 나타내고, 목적어에 강세가 오면 ‘한 시간에 백 자밖에 못썼다’ 라는 의미로 쓴 글자의 수가 적음을 나타낸다. 한국어에서는 ‘만’, ‘밖’ 등의 조사를 사용해서 초점을 부각시키는 반면에, 중국어에서 어순, 표지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강세의 위치를 바꾸어서 초점구조를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어에서 화용적 힘이 강력하여 문법적 범주의 기능 분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7) a. 他昨天 ‘回来了。 그는 어제 ‘돌아왔다.
 b. 他 ‘昨天回来的。 그는 ‘어제 돌아왔다.

(7a)와 (7b)는 모두 이미 실현된 사건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보포장 방식이 다르다. (7a)에서는 상 표지 ‘了’ 가 쓰였고 이 문장에서 강세를 받는 ‘回来’ 가 초점이 된다. 반면에 (7b)에서는 ‘了’ 대신에 ‘的’ 가 쓰였으며 ‘昨天’ 이 초점이 되었다. 한국어에서는 강세로만 두 문장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정보포장 방식의 차이가 상 표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고는 (7b) 및 아래 (8)의 ‘的’ 가 모두 상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본다.

- (8) a. 他什么时候离开的北京。
 b. 昨天你在哪儿见的他们。
 c. 你在哪儿认识的他。

일부 학자들은 ‘的’ 가 문말에도 쓰일 수 있고 이는 목적어의 한정성에 민감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的’ 의 위치는 한정성보다는 오히려 운율적 특징, 즉 동사와

가치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비모어화자의 연구는 대상 언어와의 대조를 기반으로 하기에 모어화자가 발견하기 힘든 언어적 변이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심한 관찰을 할 수 있게 한다. 모어와 대상언어의 대조 연구에서 시작하여 범언어적 탐색을 통해서 언어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언어 보편적 원리 탐구를 지향할 수 있다. 이는 언어유형론의 발전에 대해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는 외국어 교육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